

# 취업노인의 특성 연구

## - 취업상태변화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Employed Elderly

#### - Focusing on Employment Status Transition -

손지아·박순미\*

가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진주보건대학 의약복지정보계열

Son, Ji A · Park, Soon Mi\*

Dept. of Social Welfare, Kaya University

Dept. of Medical & Welfare Information, Jinju Health College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in detail the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over 65 years old and to compare those that have experienced no job change in the last 10 years with another group that have experienced job change at least once in the last 10 years. From the 10th wave data(KLIP), participants who were over 65 years old were chosen and their employment status for the last 10 years was review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demographic profiles indicated that householders and elderly couples with low education levels and low socioeconomic status were more likely to be employed compared to others. Second, in terms of work-related characteristics, it was revealed that the elderly who were employed tended to be non-paid workers, employers, and self-employed workers, primarily in the farming, fishing, forestry, and the mining industries, these were the elderly workers who had experienced job change three times or more in the last 10 years. Third, the analysis of economic characteristics indicated that elderly who were employed tended to rely more on private income transfers. Last, when the elderly who had experienced no job change in the last 10 years were compared to the elderly who had experienced job change in the last 10 years, the two groups differed significantly in terms of employment status, type of business, and occupation category.

**Keywords:** the employed elderly, employment status, transition of employment status.

## I. 서론

고령사회로의 진전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노인들 중 많은 수는 가족구조의 변화, 사적부양의 축소,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 공공부조 같은 공적이전의 제한성 등과 같은 상황 속에 존재하고 있다. 노인을 둘러싼 이러한 상황

은 결국 노후에도 소득활동이 필요한 노인을 증가시켜 높은 노인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 장지연 외(2008)의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노인이 많은 국가는 노인빈곤율도 높고 노후소득의 불균등분포도 뚜렷하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보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은

---

\* Corresponding author : Park, Soon Mi  
Tel: 055-740-1875, Fax: 055-743-3010  
Email: pworker@hanmail.net

노인의 빈곤문제나 노후소득 불평등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2008)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취업률이 34.5%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적이전제도가 잘 갖추어진 서구유럽국가들의 노인 취업률 1~3%와 비교해 보았을 경우는 물론이고, 미국의 15%, 일본의 19.8%보다도 훨씬 높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노인취업률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인취업시장에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노인인력의 상당부분이 '노화에 따른 생산성 약화'라는 우리사회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취업기회를 제한당하고 있으며 취업 기간 동안에도 불안정한 일자리의 특성을 지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더구나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바람을 타고 온 구조변화로 인하여 고용불안정성은 노인에게 심화되고 이는 고용의 질이 매우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노인인력은 생활수준, 건강수준 등에 따라 경제활동 상태가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노동력공급자로서 주변부 혹은 이차노동시장에 배치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취하기 마련인 것이다. 2005년 8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노동자의 88%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1년 같은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인 85%에서 더 높아진 비율이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취업과 연관되어 현재 한국노인이 처한 상황은 취업에 대한 희망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노인취업과 관련된 상황이 노화로 인한 노동능력의 감소와 연령제한에 따른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그리고 노후생계를 위한 주변적 일자리로의 재진입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주변적 일자리, 단순 직종에 진입하고 있는 취업노인은 고용의 보장성과 안정성측면에서도 낮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고용불안정성으로 인해 노인은 취업상태가 변화하며, 그 변화가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유추되는 바, 노인이 어느 정도의 취업변화를 경험하면서 현재 일자리 특성을 지니게 되었는지 즉, 취업상태변화와 관련된 노인취업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취업노인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편이지만 취업노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노인취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노인의 퇴직과정에 대한 연구, 재취업 결정요인에 관

한 연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재취업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어 취업 혹은 재취업의 과정을 거쳐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노인들의 특성과 그 일자리의 성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노인취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은퇴와 재취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대상을 45세 이상의 중고령자들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어 60세 혹은 65세 이상의 실질적 노인집단의 특성과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 취업 혹은 재취업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취업 혹은 재취업의 과정을 통과하여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노인의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노동관련 요인, 경제상황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취업노인의 특성을 보다 더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현재 일하고 있는 노인을 지난 10년 동안 취업상태의 변화가 없었던 노인과 취업상태의 변화가 있었던 노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10년간의 데이터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업상태변화에 따른 취업노인의 특성분석을 통해 노인의 취업과 연관된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노인의 취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유효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취업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취업노인의 노동관련 특성(일자리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취업노인의 경제상황 관련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취업노인 중 10년동안 취업상태 변화 없는 노인과 취업상태 변화 없는 노인을 구분하는 유의미한 변수들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노인 취업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

한국사회에서 노인취업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는 노인의 심리사회적 욕구충족에 초점을 둔 역할이론 및 활동이

론으로 대표되는 미시적 노년학이론에 근거한 접근이 주를 이루어 왔다(남기민, 최화강, 2009; 송인주, 2008; 이영숙, 2007; 이지현 외, 2008). 반면 몇몇 연구들(김태현 외, 2001; 윤형호 외, 2007; 이종훈, 2004)은 거시적 노년학으로 구분되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노인취업을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노인취업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노인취업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가 빈약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 본 연구는 노인취업과 관련하여 거시적 접근으로 노동수요측면에서의 인적자본론과 노동공급측면에서의 노동시장양극화가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과 노인

인적자본론은 완전경쟁시장과 노동의 동질성에 대한 관점을 토대로 하여 노동의 질적차이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임금, 고용형태의 차이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고 보면서 노동의 질을 개인의 투자행위에 의해 설명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주성환, 최준해, 2001). 이 입장은 산업사회에서 노동시장격차의 주요원인은 변화된 산업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직업기술 수준과 개별노동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학력, 훈련 등의 인적자원 수준과의 불일치의 결과라는 것이다.

인적자본론의 관점에서 보면, 노인의 취업문제는 현재의 노동수요측면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노인이 보유한 인적자원수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우리나라 노인은 오랜 기간 동안 농업을 기반으로 농경사회에서 살아온 기간이 길며, 저학력 등으로 인해 전문적 직업기술의 습득에 있어서 한계를 지니고 있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생산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취업가능성의 차이 및 취업 시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이중노동시장론(dual labor market theory)과 노인

이중노동시장론은 노동시장이 고임금·고용불안·양호한 근무환경으로 특징이 지워지는 1차노동시장(primary sector)과 저임금·고용불안·나쁜 근무환경의 2차 노동시장(secondary sector)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금재호, 2005). 산업사회가 진행될수록 두 노동시장의 형태는 고착되며 양 노동시장간의 이동은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남성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

운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은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우리사회는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는 높은 임금, 높은 직업안정성, 상향이동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상위일자리가 증가하는 동시에 낮은 기술, 불안정 고용, 낮은 임금, 낮은 고용 안정성으로 특징지어지는 하위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민현주, 2008). 이처럼 한국의 노동시장이 양극화되면서 노인을 비롯한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이 이러한 하위일자리로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근로의 실태를 연구한 안주영 외(2001)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여성, 청소년, 고령층, 저학력층 등이 높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기능직, 단순노무직, 서비스직에서 임시직·일용직의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자발적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서구사회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저학력, 고연령층에 한시적 노동자가 집중되고 있어 노인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비자발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이 사회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현실은 노인들이 취업 혹은 재취업으로 갖게 되는 일자리가 대부분이 비정규직임을 예상케 한다. 많은 노인들이 연령, 은퇴 후 재취업 등의 이유로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노인들이 연령, 은퇴 후 재취업 등의 이유로 저임금의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 혹은 하위일자리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2. 선행연구 검토

현재 취업중인 65세 이상 노인의 취업특성과 취업상태의 변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퇴직연구, 재취업연구들을 중심으로 노인취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특징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노동관련 요인 그리고 경제상황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인구사회학적 요인

노인의 취업상태를 특징짓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구주여부, 가구원수, 가구유형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성별의 경우 성역할에 대한 차이에서 남성노인의 취업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취업에서 차별이 더 심할 것으

로 예상되어, 취업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학주, 우경숙(2004)의 연구는 고령일수록 노동시장에서 연령차별과 성차별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은 노인의 취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직업 기술 및 경험이 더 많다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취업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진다(박경숙, 2006; 성지미, 안주엽, 2006).

혼인상태 또한 노인의 취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으로 유배우자 상태에 있는 노인이 무배우자상태에 있는 노인보다 노동시장에 더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남녀노인에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중고령층 여성노동자의 경우 배우자의 존재가 퇴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재취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용, 2007). 그러나 김학주, 우경숙(2004)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존재여부가 노인취업이나 재취업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취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학적 요인은 가구원수와 가구유형이다. 취업에 있어 가구원수가 많으면 노인의 경우 생계를 위해 자신이 취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가구원수가 많으면 취업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구유형의 경우, 노인단독세대나 노인부부세대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와의 동거를 통한 노후생활보장이 약화되어 근로소득의 확보를 위한 노인취업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 2) 노동관련 요인

노인취업을 특징짓는 노동관련 요인들은 취업형태, 종사상지위, 업종과 직종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노인의 취업률이 높은 것은 임금노동자보다 비임금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것은 노인일자리가 농업, 임업, 어업 같은 1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고령자 혹은 중고령자의 취업형태를 살펴본 결과 비임금근로의 취업비중이 임금근로 취업의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경숙, 2006; 성지미, 안주엽, 2006; 장지연, 2002). 또한 연령대별 비임금근로의 비중을 살펴보았을때도 연령이 상승할수록 비임금근로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밝히고 있다(성지미,

안주엽, 2006).

이와 관련하여 박경숙(2006)은 취업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집단을 상반되는 두 집단으로 설명하였는데 한 집단은 전문관리직으로 중산층 임금근로자이고, 다른 집단은 농어업·영세판매서비스업을 운영하거나 가족종사자로 공식적인 퇴직제도가 없는 집단으로 설명한다.

## 3) 경제상황관련 요인

마지막으로 경제상황관련 요인으로는 노후세대의 소득의 형태와 수준이 있다. 노후소득은 노인취업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빈곤층에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을 통한 생계보장을 위해 은퇴이후에도 계속근로를 하는 것으로, 부유층에 있는 사람은 경제적 이유는 아니지만 직업에 대한 애착 등으로 계속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장지연, 2002).

이상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노인취업과 관련하여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대상자가 실질적인 노인집단이라기 보다는 40-50대의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실제 노인집단에 그대로 적용가능함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선행연구는 노인재취업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노인들의 특성과 그 일자리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취업 중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노인들의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노동관련 요인, 경제상황 요인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1차에서부터 10차년도 자료 활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하는 종단 조사(longitudinal survey)이

다(한국노동연구원, 2010).

본 연구는 현재 취업노인의 세부적 특성 분석을 통해 실제적인 취업 노인을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들의 현재 취업상태가 지난 10년간 취업상태의 변화가 있었는지 혹은 없었는지, 즉 현재 노인의 취업상태가 지난 10년 간 동일한 일자리인지, 일자리의 변화가 있었는지 구분하여 두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종단적 기준으로 대상을 구분하는 이유는 기존 노인취업관련 선행에서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횡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노인의 취업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취업상태변화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함으로써 보다 현재 노인의 취업특성을 자세히 분석할 수 있다.

노인의 기준은 10차년도 기준 만 65세 이상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기준을 만 50세 또는 55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노인취업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노인의 취업특성을 상세히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정책적으로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기준이 만 65세이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퇴직 연령을 고려할 때 현재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도 취업 상태에 있는 노인들의 취업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실제적인 노인취업의 특성이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노인고용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는 데에 중요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연구대상자를 추출하기 위해 먼저 10차년도(2007년도)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 만 65세 이상이면서 취업 중인 노인을 추출하였다. 일차적으로 10년도 기준 취업노인은 397명(22.7%), 미취업노인은 1,351명(77.3%)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출된 379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난 10년간 취업상태의 변화가 있었는지, 변화가 없었는지를 구분하기 위해 1차 자료에서부터 개인별 연도별 직업유무, 상태를 파악하며 10년간 직업상태 변화가 있었던 집단과 없었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10차년도 기준 직업이 있는 노인 379명 중 10년간 취업상태 변화가 있었던 노인은 184명, 취업상태 변화가 없었던 노인은 195명으로 나타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변수측정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는 노인의 취업 및 재취업에

관련된 선행연구검토를 거쳐 연구문제에서 제시된 변수들로 인구사회학적 관련 변수, 노동관련 변수, 경제상황 관련 변수로 구분된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주여부, 가구원수, 거주지역,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동관련 변수는 취업형태, 업종 및 직종, 현재 일자리 순위, 현재 일자리 근무기간, 직전 일자리 특성 등을 포함하고 있고, 경제상황 관련 변수로는 소득유형별 유무 및 금액, 보호가구 여부, 사회보험 수급여부, 상대빈곤가구 여부 등으로 이루어진다.

##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15.0 윈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노인의 세부적인 특성은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둘째, 취업상태 변화가 있었던 집단과 취업상태 변화가 없었던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동관련 특성, 경제상황 관련 특성에 따른 차이를  $\chi^2$  검증과 t-test로 분석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취업 노인의 특성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현재 취업노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우선, 취업노인의 성별은 남성노인이 58.8%, 여성노인이 4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대 특성은 65-69세가 58%, 70-74세가 28.0%를 차지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69.7세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40.9%, 무학이 19.8% 순으로 대체로 낮은 학력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가구주인 경우가 75.2%를 차지하였으며, 노인의 혼인상태는 기혼유배우자가 74.1%, 가구원수를 살펴볼 때 2명인 경우가 46.2%, 3명인 경우가 2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유형에서도 노인부부세대가 43.0%, 노인+자녀세대가 41.4%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가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취업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다. 취업노인의 거주지역은 특별시·광역시보다는 시·도지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35.6%), 보통(35.4%)의 상태를 나타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해 하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4.7%로 나타내 취업노인의 열악한 가구 특성을 나타내었다.

〈표 1〉 취업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79

특 성		빈도(명)	비율(%)
성 별	남 자	223	58.8
	여 자	156	41.2
연 령	65-69세	220	58.0
	70-74세	106	28.0
	75-79세	46	12.1
	80세 이상	7	1.8
	연령 평균	69.7세(SD=4.07)	
교 육 수 준	무 학	75	19.8
	초등학교 졸업	155	40.9
	중학교 졸업	50	13.2
	고등학교 졸업	71	18.7
	전문대학 졸업 이상	28	7.5
가구주 여 부	가구주	285	75.2
	가구주의 배우자	77	20.3
	가구주의 (조)부모	17	4.5
혼 인 상 태	기혼 유배우자	281	74.1
	기혼 무배우자	98	25.9
가구원수	1명	56	14.8
	2명	175	46.2
	3명	84	22.2
	4명	34	9.0
	5명 이상	30	7.9
가구원수 평균	2.54명(SD=1.22)		
가구유형	노인단독세대	56	14.8
	노인부부세대	163	43.0
	노인+부모세대	3	0.8
	노인+자녀세대	157	41.4
거주지역	특별시, 광역시	141	37.2
	시, 도	238	62.8
건강상태	건강이 아주 안 좋다	9	2.4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96	25.3
	보통이다	134	35.4
	건강한 편이다	135	35.6
	아주 건강하다	5	1.3
사 회 경 제 적 지 위	상	4	1.1
	중	166	44.3
	하	205	54.7

## 2) 노동관련 특성

취업노인의 노동관련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노인의 취업형태는 임금 종사자가 34.3%, 비임금 종사자가 65.7%로, 비임금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노인 취업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종사상 지위는 비임금 종사자의 비율이 높음에 따른 고용주/자영업자가 52.2%로 가장 높게 차지하였고, 상용직이 15.6%를 차지하였다. 업종과 직종 특성을 분석한 결과, 우선 업종의 경우 농, 임, 어, 광업 등의 1차 산업 비중이 42.7%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판매업(24.8%), 서비스업(2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취업노인의 노동관련 특성

N=379

특 성		빈도(명)	비율(%)
취업 형태	임금	130	34.3
	비임금	249	65.7
종사상 지위	상용직	59	15.6
	임시직	30	7.9
	일용직	41	10.8
	고용주/자영업자	198	52.2
	무급가족종사자	51	13.5
업종	농, 임, 어, 광업	162	42.7
	제조 및 건설업	41	10.8
	판매업	94	24.8
	서비스업	82	21.6
직종	관리자 및 전문가	24	6.3
	사무종사자	5	1.3
	서비스종사자	23	6.1
	판매종사자	45	11.9
	농, 임, 어업 숙련종사자	155	40.9
	기능 및 조립종사자	33	8.7
	단순노무종사자	94	24.8
현재 일자리 번호	1번째 일자리	96	25.3
	2번째 일자리	104	27.4
	3번째 일자리	53	14.0
	4번째 일자리	52	13.7
	5번째 이상 일자리	74	19.5
	평균	3번째 일자리(SD=2.03)	
직업상태 변화유무	변화없음	195	51.5
	변화있음	184	48.5

직종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 농, 임, 어업 숙련 종사자가 4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이 24.8%로 높게 나타났다.

10차년도 현재 최종 일자리 번호로는 2번째 일자리라고 응답한 경우가 27.4%, 1번째 일자리가 25.3%로 나타났다. 5번째 이상 일자리로 응답한 경우도 19.5%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현재 일자리가 3번째 일자리로 나타나 취업 노인이 지난 10년간 평균 2번 이상의 일자리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취업상태의 변화가 없는 경우는 51.5%를 차지하였고, 취업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48.5%를 차지하여 이 또한 노인 취업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3) 경제상황 특성

취업노인의 경제상황 관련 특성은 <표 3>와 같다. 경제상황과 관련된 소득기준은 노동패널자료의 경우 전년도 금액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취업노인의 작년 한해 평균 근로소득은 연 1,067만원으로 월평균 약 89만원으로 나타났고, 취업형태와 관련해 임금 종사자에 비해 비임금 종사자의 소득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이외 소득유형 유무와 관련해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는 14.2%, 부동산 소득 14.0%, 사회보험 소득 42.2%, 이전소득 94.2%, 기타소득 8.4%로 나타나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노인의 소득원으로 이전 소득과 사회보험 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전소득의 경우 연 평균금액이 204.1만원으로 그 중에서 공적이전소득은 27.92만원에 불과하였으며, 사회보험 소득의 비중은 50%미만으로 연평균 176.2만원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연간 총소득은 가구원수를 고려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결과 1,344.7만원으로 월평균 122.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차년도 중위소득(월 131.8만원)의 50%이하, 즉 상대빈곤가구에 속하는 비율이 276명으로 72.8%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취업노인의 경제상황이 매우 빈곤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 3> 취업노인의 경제상황 특성

N=379

특 성		빈도(명)	비율(%)
근로소득	있음	373	98.4
	없음	6	1.6
	연 평균	1,067만원(SD=1,168.11)	
	임금 종사자 평균	1,019.6만원(SD=1,106.55)	
	비임금 종사자 평균	1,096.6만원(SD=1,206.77)	
금융소득	있음	54	14.2
	없음	325	85.8
	연 평균	80.3만원(SD=511.294)	
부동산 소득	있음	53	14.0
	없음	326	86.0
	연 평균	108.0만원(SD=548.54)	
사회보험 소득	있음	160	42.2
	없음	219	57.8
	연 평균	147.5만원(SD=372.40)	
이전소득	있음	357	94.2
	없음	22	5.8
	연 평균	204.1만원(SD=463.00)	
공적이전 소득	있음	328	86.5
	없음	51	13.5
	연 평균	27.92만원(SD=54.32)	
사적이전 소득	있음	259	68.3
	없음	120	21.7
	연 평균	176.2만원(SD=461.15)	
기타소득	있음	32	8.4
	없음	347	91.6
	연 평균	99.3만원(SD=)	
연 간 총소득	연평균 (가구균등화지수 적용)	1,344.7만원/월평균 122.1만원(SD=107.90)	
월평균 생활비	평균	109.8만원(SD=1,048.98)	
사회보험 수급여부	받은 적 있다	25	6.6
	현재 받고 있다	92	24.3
	받은 적 없다	262	69.1
보호대상 가구 여부	보호대상가구 임	9	2.4
	보호대상가구 아님	370	97.6
상대빈곤 가구 여부	상대빈곤가구	276	72.8
	상대빈곤가구 아님	103	27.2

## 2. 취업 상태 변화여부에 따른 특성 비교

취업상태 변화여부에 따른 취업노인의 특성 비교를 위해 활용된 총 379명 중 지난 10년간 취업상태의 변화가 없었던 노인, 즉 10년 간 지속적으로 동일한 일 자리를 유지한 노인은 195명으로 51.5%를 차지하였고, 지난 10년간 취업상태의 변화가 있었던, 즉 예를 들어 취업, 퇴직, 재취업 또는 퇴직, 재취업 또는 미취업, 취업 등 등 일자리가 변한 노인은 184명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하였다. 이들 노인의 영역별 특성 비교는 다음과 같다.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취업상태 변화에 유무에 따른 취업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에 대한 특성비교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 집단 간 특성 차이를 나타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로는 가구유형과, 거주지역, 건강상태 변수로 나타났다. 취업상태의 변화가 없었던 집단의 경우 노인부부세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취업상태 변화 있었던 집단의 경우 노인+자녀세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가구 내 노인이 가구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하는 상황은 노인가구의 경제상황이 매

(표 4) 취업상태 변화 유무에 따른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변인 비교

특 성		취업상태 변화 없는 노인(N=195)		취업상태 변화 있는 노인(N=184)		$\chi^2/t$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 별	남 자	112	57.4	111	60.3	.327
	여 자	83	42.6	73	39.7	
연 령	평균 연령	70.0세(SD=4.18)		69.4세(SD=3.93)		1.329
교 육 수 준	무학	38	19.5	37	20.1	2.615
	초등학교 졸업	87	44.6	68	37.0	
	중학교 졸업	23	11.8	27	14.7	
	고등학교 졸업	34	17.4	37	20.1	
	전문대학 졸업이상	13	6.7	15	8.2	
가 구 주 여 부	가구주	145	74.4	140	76.1	1.351
	가구주의 배우자	43	22.1	34	18.5	
	가구주의 (조)부모	7	3.6	10	5.4	
혼 인 상 태	기혼 유배우자	148	75.9	133	72.3	.645
	기혼 무배우자	47	24.1	51	27.7	
가 구 원 수	평균	2.51(SD=1.27)		2.56(SD=1.17)		-.373
가 구 유 형	노인단독세대	27	13.8	29	15.8	7.829*
	노인부부세대	97	49.7	66	35.9	
	노인+부모세대	1	0.5	2	1.1	
	노인+자녀세대	70	35.9	87	47.3	
거 주 지 역	특별시, 광역시	56	28.7	85	46.2	12.378*
	시, 도	139	71.3	99	53.8	
건 강 상 태	평균	2.9(SD=.87)		3.2(SD=.85)		-2.499*
사 회 경 제 적 지 위	상	2	1.0	2	1.1	2.785
	중	93	48.4	73	39.9	
	하	97	50.5	108	59.0	

\*p<.05



우 열악함을 나타내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거주지역의 경우 취업상태 변화가 없었던 집단의 경우 시, 도 지역의 비중이 매우 높게 차지하였고, 취업상태 변화 있는 집단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등 도시의 비중이 46.2%를 차지하고 있었다.

건강상태과 관련해 취업상태 변화 있는 노인이 취업상태 변화 없는 노인에 비해 건강상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상태 변화 있는 노인이 취업상태 변화 없는 노인에 비해 연령이 낮고, 특별시, 광역시 거주 비율이 더 높은 특성과 관련된다 할 수 있다.

그 외, 인구사회학적 변수 특성은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교육수준과 관련해 중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노인은 취업상태 변화가 없었

던 집단보다 취업상태 변화가 있었던 집단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2) 노동관련 특성

취업상태 변화에 유무에 따른 취업 노인의 노동관련 특성 비교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변수를 제외하고 각각의 특성별로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취업형태와 관련해 취업상태 변화 없는 집단은 비임금이, 취업상태 변화 있는 집단은 임금 형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즉, 임금 종사자의 경우 취업의 불안정성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결과이다. 업종 분석에서는 취업

<표 5> 취업상태 변화 유무에 따른 집단별 노동관련 변인 비교

특 성		취업상태 변화 없는 노인(N=195)		취업상태 변화 있는 노인(N=184)		$\chi^2/t$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취업 형태	임금	25	12.8	105	57.1	82.238*
	비임금	170	87.2	79	42.9	
종사장 지 위	상용직	11	5.6	48	26.1	82.392*
	임시직	6	3.1	24	13.0	
	일용직	8	4.1	33	17.9	
	고용주/자영업자	134	68.7	64	34.8	
	무급가족종사자	36	18.5	15	8.2	
업 종	농,임,어, 광업	112	57.4	50	27.2	41.000*
	제조 및 건설업	19	9.7	22	12.0	
	판매업	41	21.0	53	28.8	
	서비스업	23	11.8	59	32.1	
직 종	관리자 및 전문가	10	5.1	14	7.6	81.823*
	사무종사자	3	1.5	2	1.1	
	서비스종사자	12	6.2	11	6.0	
	판매종사자	25	12.8	20	10.9	
	농,임,어업 숙련종사자	111	56.9	44	23.9	
	기능 및 조립종사자	21	10.8	12	6.5	
	단순노무종사자	13	6.7	81	44.0	
일자리 번호	1번째 일자리	89	45.6	7	3.8	140.607*
	2번째 일자리	66	33.8	38	20.7	
	3번째 일자리	19	9.7	34	18.5	
	4번째 일자리	13	6.7	39	21.2	
	5번째 이상 일자리	8	4.1	66	35.9	
평균		1.9(SD=1.15)		4.2(SD=2.11)		-12.811*
최종일자리 근무연한		34.4년(SD=16.10)		3.6년(SD=2.65)		25.991*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3.0(SD=.69)		2.9(SD=.66)		.533*

\*p<.05

상태 변화 없는 집단은 농,임,어,광업의 비중이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나 1차 산업의 특성상 취업상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특성을 나타냈다. 취업상태 변화 있는 집단은 서비스업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판매업 28.2%, 농,임,어,광업이 27.2%로 나타났다. 직종 분석에서는 취업상태 변화 없는 집단은 업종의 특성 상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의 비중이 56.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취업상태 변화 있는 집단은 단순노무종사자가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가 몇 번째 일자리인지와 관련해 취업상태 변화 없는 집단은 1.9번째 일자리인 반면, 취업상태 변화 있는 집단은 4.2번째 일자리로, 노인의 취업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특성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 일자리(최종 일자리) 근무 연한의 경우 취업상태 변화 없는 집단은 34.4년, 취업상태 변화 있는 집단은 3.6년으로 나타났다.

노동관련 변인 중 현재 일자리의 직전 일자리 관련 특성 비교와 관련해 <표 6>에 제시하였다. 직전 일자리 특

성 또한 앞의 노동관련 특성과 같이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직전 일자리의 업종 및 직종 특성은 현재 일자리의 업종 및 직종의 내용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취업상황이 시간이 경과하여도 열악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3) 경제상황 관련 특성

두 집단 간 소득을 중심으로 한 경제상황 관련 특성 비교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상황 관련 특성은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총소득의 경우 취업상태 변화 없는 집단이 취업상태 변화 있는 집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타소득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많이 나타났는데, 기타소득 항목은 보험료, 퇴직금, 보상금, 기타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소득이 집단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표 6> 취업상태 변화 유무에 따른 집단별 노동관련 변인(직전 일자리) 비교

특 성		취업상태 변화 없는 노인(N=195)		취업상태 변화 있는 노인(N=184)		$\chi^2/t$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직전일자리 업종	농,임,어, 광업	100	53.5	35	19.4	55.344*
	제조 및 건설업	15	8.0	45	25.0	
	판매업	42	22.5	45	25.0	
	서비스업	22	11.8	47	26.1	
	무 직	8	4.3	8	4.4	
직전일자리 직종	관리자 및 전문가	10	5.3	20	11.0	72.356*
	사무종사자	2	1.1	6	3.3	
	서비스종사자	11	5.9	15	8.3	
	판매종사자	25	13.4	13	7.2	
	농,임,어업 숙련종사자	100	53.5	35	19.3	
	기능 및 조립종사자	20	10.7	30	16.6	
	단순노무종사자	11	5.9	55	30.4	
무 직	8	4.3	7	3.9		
직전일자리 형태	임 금	25	12.8	115	66.1	110.824*
	비임금	170	87.2	59	33.9	
직전일자리 종사상지위	상용직	11	5.6	55	31.8	112.348*
	임시직	6	3.1	26	15.0	
	일용직	8	4.1	34	19.7	
	고용주/자영업자	134	68.7	48	27.7	
	무급가족종사자	36	18.5	10	5.8	

\* $p < .05$

〈표 7〉 취업상태 변화 유무에 따른 집단별 경제상황 변인 비교

특 성		취업상태 변화 없는 노인(N=195)	취업상태 변화 있는 노인(N=184)	$\chi^2/t$
(작년한해 총)근로소득		1,665.8만원 (SD=1,750.92)	1,428.2만원 (SD=1,578.59)	1.383
(작년한해 총)금융소득		89.9만원 (SD=482.59)	70.0만원 (SD=541.18)	.379
(작년한해 총)부동산소득		125.5만원 (SD=672.68)	89.4만원 (SD=375.72)	.639
(작년한해 총)사회보험소득		131.9만원 (SD=354.89)	163.9만원 (SD=390.39)	-.833
(작년한해 총)이전소득		192.0만원 (SD=253.41)	216.8만원 (SD=611.13)	-.519
(작년한해 총)공적이전소득		25.4만원 (SD=43.09)	30.3만원 (SD=64.13)	-.878
(작년한해 총)사적이전소득		166.6만원 (SD=250.66)	186.4만원 (SD=610.28)	-.417
(작년한해 총)기타소득		153.6만원 (SD=1,451.18)	41.6만원 (SD=184.08)	1.068
(작년한해)총소득 (가구균등화지수 적용)		1,453.2만원 (SD=1,464.92)	1,229.6만원 (SD=1,078.27)	1.684
월평균 생활비		113.5만원 (SD=91.97)	105.8만원 (SD=80.77)	.867
사회보험 수급여부	받은 적 있다	11명(5.6%)	14명(7.6%)	.337
	현재 받고 있다	53명(27.2%)	39명(21.2%)	
	받은 적 없다	131명(67.2%)	131명(71.2%)	
보호대상 가구여부	보호대상가구 임	3명(1.5%)	6명(3.3%)	1.211
	보호대상가구 아님	192명(98.5%)	178명(96.7%)	
상대빈곤 가구여부	상대빈곤가구	135명(69.2%)	141명(76.6%)	2.619
	상대빈곤가구 아님	60명(30.8%)	43명(23.4%)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험소득과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취업상태 변화 있는 집단이 취업상태 변화 없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취업상태 변화 있는 집단이 취업상태 변화 없는 집단에 비해 근로소득이 열악하고,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대빈곤가구 비율이 취업상태 변화 있는 집단이 취업상태 변화없는 집단에 비해 다소 높게 차지하고 있어 취업상태 변화 있는 노인의 빈곤수준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 V. 결과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취업

노인의 세부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노인취업의 실제적 특성, 즉 취업상태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동일한 일자리인지, 취업상태가 변했는지를 기준으로 취업상태 변화 없는 집단과 취업상태 변화 있는 집단의 비교분석을 통해 취업노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노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해 성별에서는 남성과 여성간 유사한 비율, 평균연령은 69.7세, 초등졸업 및 무학 중심의 낮은 학력수준, 가구주로서의 가구내 지위, 기혼유배우자, 노인부부세대 및 노인+자녀세대의 비중이 높은 가구유형 등의 특징을 나타내 현재 취업 노인이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취업노인의

거주 지역은 특별·광역시 보다는 사·도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해 스스로 하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4.7%로 나타내 취업노인의 열악한 가구 특성을 나타내었다.

둘째, 취업상태의 특성 중 노동관련 특성으로, 취업 형태는 비임금 종사자가 65.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사상 지위와 관련해 임금 노동자 중 상용직의 비율은 15.6%에 불과했다. 업종과 직종 특성을 분석한 결과, 우선 업종의 경우 농,임,어, 광업 등의 1차 산업 비중이 42.7%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판매업(24.8%), 서비스업(2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 농,임,어업 숙련종사자가 4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이 24.8%로 높게 나타나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취업률은 농1차산업 중심의 업종 특성과 단순노무종사자 중심의 직종 특성을 지닌다 할 수 있다. 10차년도 현재 최종 일자리 번호로는 5번째 이상 일자리의 경우가 19.5%로 평균적으로 현재의 일자리가 3번째 일자리로 나타나 현재 취업 노인이 지난 10년간 평균 2번 이상의 일자리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지난 10년간 취업상태의 변화가 없는 경우는 51.5%를 차지하였고, 취업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48.5%를 차지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인 취업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임금종사자의 노동관련 특성에서 비정규직의 경우가 67.7%를 차지하였고, 사회보험 가입현황은 각 보험종류별 가입되어 있는 경우보다 가입되어 있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노인취업자들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취업노인의 경제상황 관련 특성으로, 취업 노인의 연간 총소득은 가구원수를 고려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결과 1,344.7만원으로 월평균 122.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차년도 중위소득(월 131.8만원)의 50%이하, 즉 상대빈곤가구에 속하는 비율이 276명으로 72.8%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취업노인의 경제상황이 매우 빈곤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소득유형과 관련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원이 근로소득이었으며,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현재의 노인 취업이 노인가구의 소득보장방법으로 부족한 실정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상태 변화여부에 따른 취업노인의

특성 비교 결과로, 취업상태 변화 없는 집단은 비임금 종사자의 비율이, 취업상태 변화 있는 집단은 임금 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업종 분석에서는 취업상태 변화 없는 집단은 농,임,어,광업의 비중이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나 1차 산업의 특성상 취업상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특성을 나타냈다. 취업상태 변화 있는 집단은 서비스업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판매업 28.2%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 분석에서는 취업상태 변화 없는 집단은 업종의 특성 상 농,임,어업 숙련 종사자의 비중이 56.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취업상태 변화 있는 집단은 단순노무종사자가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가 몇 번째 일자리인지와 관련해 취업상태 변화 없는 집단은 1.9번째 일자리인 반면, 취업상태 변화 있는 집단은 4.2번째 일자리로 나타났다. 취업상태 변화 없는 집단은 1차 산업 및 자영업, 가족종사자 중심의 직종 특성상 퇴직의 의미가 별로 없는 업종 및 직종에 놓여 있는 비율이 높으며, 취업상태 변화 있는 집단은 임금 종사자서 매우 불안한 종사상의 지위와 단순노무 중심의 취약한 직종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취업 노인은 지난 10년간 취업상태의 변화유무와 관련해 취업상태가 변하지 않는 노인은 업종과 직종의 특성상 1차 산업 및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으며, 취업상태가 변한 노인은 고용상의 지위가 불안정한 임금종사자 및 단순노무와 관련된 직종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취업과 관련된 업종을 보다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 취업노인의 많은 부분이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임금종사자의 비율은 3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고령화 특성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 반영과도 관련 있다. 즉, 현재 노인 취업이 적극적인 노인고용정책의 결과라기보다 취업상태 변화 없는 노인의 경우 본래부터 오랜 기간 1차 산업에 오랜 기간 종사해 왔거나 농촌지역 내 임금일자리 부족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취업상태 변화 있는 노인의 경우 노인 일자리의 불안정으로 서비스업, 판매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에 향후 노인의 취업 및 재취업을 위한 업종과 관련해 1차 산업 분야 내 임금일자리 확

대뿐만 아니라 3차 산업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1차 산업 종사자를 비롯한 비임금 종사자의 경우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공적 지원체계가 열악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현실에 비취볼 때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의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취업노인의 종사상 지위와 관련해 안정적인 고용 지위 보장을 위한 법적 지원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현재 취업노인의 일자리가 평균 3번째 일자리, 즉 지난 10년간 최소 2번의 일자리 변동이 있었으며, 특히나 취업상태 변화 있는 노인의 경우 현재 일자리가 5번째 이상 일자리라고 응답한 경우가 3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평균 4.2번째 일자리로 나타났다. 노인인력은 생활수준, 건강수준 등에 따라 경제활동 상태가 민감하게 변화되는 대상으로, 노인들은 노동력공급자로서 주변부 혹은 이차노동시장에 배치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취하기 마련인 것이다. 결국 높은 노인 취업률 안에 내포되어 있는 노인 일자리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현재 취업노인의 경우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노동시장 환경 내에서 단기간 내 취업상태 변화가 발생하고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히 노인 취업이 주안점이 아니라 안정적인 취업의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노인취업을 위한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취업노인의 인구나사회학적 특성 중 학력수준은 초졸 및 무학 중심의 낮은 학력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취업노인의 일자리 특성이 1차 산업 중심과 1차 산업 숙련종사자를 제외하고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현실과 상관관계가 있는 결과이다. 이는 고학력의 임금종사자의 경우도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연관하여 살펴볼 때, 노동시장의 재진입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다. 취업상태 변화가 없는 노인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1차 산업분야에서도 전문적 기술과 품종 개발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취업상태 변화가 있는 노인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과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실제적 노인의 취업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취업상태 변화 유무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로, 취업상

태 변화의 세부적인 이행과 그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이러한 한계를 보충하여 향후 노인의 취업상태 이행 분석에 관한 종단 연구의 후속작업이 필요함을 제시할 수 있다.

**주제어:** 취업노인, 취업상태, 취업상태 변화

## 참 고 문 헌

- 강철희, 이홍직, 홍현미라. (2005). 취업자의 재취업에 관한 분석: 인적자본관점과 인간능력관점의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57(3), 223-249.
- 금재호. (2005).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실증적 검증,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자료집**.
- 김태현, 황진수, 최성재, 이가옥, 유성호, 변재관. (2001). 고령자 취업 활성화 방안. **한국노년학**, 21(1), 2001.
- 김학주, 우경숙. (2004).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2), 97-110.
- 남기민, 최화강. (2009). 취업노인의 생산적 활동요인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 -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5, 347-371.
- 남재량, 이상호, 최효미, 신선옥, 배기준. (2009). 제10차 (2007)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 민현주. (2008). 여성취업의 두 갈래길: 상위와 하위수준 일자리 진입결정요인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8(여름호), 223-255.
- 박경숙. (2006). 남녀 고령층의 취업률과 은퇴동학,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논문집**, 7, 1-21.
- 보건복지가족부. (2008). 전국노인실태조사.
- 성지미, 안주엽. (2006). 중고령자 취업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6(1), 39-74.
- 송인주. (2008). 퇴직 남성노인 재취업 과정의 의미. **한국노년학**, 28(3), 497-514.
- 안주엽, 노용진, 박우성, 박찬임, 이주희, 허재준. (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성용. (2007). 중·고령자의 실직·재취업에 대한 동태분

- 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645-660.
- 이영숙. (2007). 노인의 취업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285-298.
- 이지현, 강형곤, 정우식, 채유미, 지영건. (2008). 취업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서울지역 남성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8(1), 143-156.
- 이종훈. (2004). **고령화에 따른 서울시 노동시장의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윤형호, 황진수, 임석. (2007). 서울시 고령재취업자의 직종선택의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27(4), 721-737.
- 장지연. (2002).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I**. 한국노동연구원.
- 장지연, 부가청, 이혜정, 신현구, 이철희, 장숙량, 조성일, Berkman, B. F. (2008). **중고령자 노동시장 국제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정이환, 이병훈, 정건화, 김연명. (2003). **노동시장유연화와 노동복지**. 서울: 인간과 복지.
- 주성환, 최준해. (2001). 성별노동시장 참가패턴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 **노동경제논집**, 24(2), 63-94.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한국노동연구원. (2010). 한국노동패널. <http://www.kli.re.kr/klips/ko/main/>

접 수 일 : 2010. 07. 02.

수정완료일 : 2011. 02. 24.

게재확정일 : 2011. 03. 15.